http://dx.doi.org/10.20880/kler.2018.53.1.37

국어교육의 융복합적 특성과 문식성

윤여탁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소 교수

* 이 논문은 제65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7.12.1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3A2046771).

I. 머리말
II. 국어교육의 본질과 융복합적 특성
III. 국어교육에서 신 문식성과 문학 문식성
IV.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이라는 단어는 생물의 종(種)만을 의미하지 않아서, 사람 인(人) 사이 간(間), 즉 '사람들 사이', '사람의 됨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람다움(인간다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가진 인간이라는 동물이 다른 동물과 달리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였다. 그 답은 대체로 인간은 불을 사용한다거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을 했고, 인간은 이 언어를 활용해서 그들의 역사와 문명을 새롭게 개척하여 왔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창조물들은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창조물들은 인간 능력을 뛰어넘을 수도 없었으며, 인간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1]이라는 기획들은 인간의 고유한 삶과 사람다움의 가치에

1)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이러한 과학적 기획들은 과거 인간들이만이 할 수 있었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와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기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언어를 다루는 국어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사고의 출발점이기도 한 언어에 주목하는 국어교육의 인문학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어교육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new media)와 같은 정보산업 기술의 영향을 받아 발상과 소통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어와 언어의 소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어교육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융복합 교과로서의 국어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말이나 문자로 소통되던 방식과는 달리 미디어가 중요한 소통방식으로 등장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신 문식성(new literacy)'[2]과 학습자

(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기되었다. 이 용어는 다가오는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화 시대를 일컫는 개념으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나타난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즉 18세기에 서양에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 촉발된 1차 산업혁명(기계화),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량 생산 체계인 2차 산업혁명(산업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정보 혁명인 3차 산업혁명(정보화)을 거쳐서, 현대사회는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지능화)의 시대라는 진단이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과거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기획을 주관하고 있다. 최근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 기획의 목표를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표제어로 하는 'I-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제안하면서, 'IN은 사람(人) 중심을 강조하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연합뉴스, 2017. 11. 30.).

2) 교육에 관점에서 신 문식성(new literacy)은 "① 'literacy' replaced 'reading', and 'writing' in educational language, ② literacy became a considerable industry, ③

의 정의적인 능력과 상상력 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문학 작품을 이해, 감상하는 능력인 문학 문식성의 본질과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국어교육의 융복합적 특성과 문식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 국어교육의 본질과 융복합적 특성

이 부분에서는 먼저 교과 학문으로서의 국어교육의 성격을 생각해보았다. 국어 교과는 대략 사용, 문화, 이념, 예술[3]이라는 네 가지 맥락을 중심으로 그 본질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국어 교과는 일상생활의 현실적인 필요와 다른 학문을 배우는 데 필요한 언어를 배우는 도구(tool) 교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언어 능력이나 의사소통 차원의 기능적인 언어 능력과 같은 국어의 사용(usage) 능력과 타 교과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습어로서의 언어 능력과 관련된 특성으로, 모든 언어의 기본적인 본질과 관련된 특성이다.

두 번째로 국어 교과는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

literacy assumed a loftier status in the eyes of educationists, ④ 'literacy' came to apply to an ever increasing variety of practices, ⑤ literacy is now being defined with the word 'new'"으로 설명되고 있다(Lankshear, 1997; Lankshear & Knobel, 2006: 12).

3) 튜더(Tudor)는 언어를 '언어학적 체계로서의 언어(language as a linguistic system)', '행위로서의 언어: 기능적 관점(language as doing things: the functional perspective)', '자기표현으로서의 언어(language as self-expression)', '문화와 이데올로기로서의 언어(language as culture and ideology)'로 설명하고 있다(Tudor, 2001: 49-76; 김은성, 2003: 84).

문화(culture) 교과로서의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화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자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은 국어에 담긴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현실문화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미래의 문화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그렇기 때문에 언어교육은 문화교육이며, 언어 학습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관점이다.

세 번째로 국어 교과는 교육 일반이 그렇듯이 국가 이데올로기(ideology)를 재생산하는 데 공헌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국가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는 비판적(critical) 능력을 기르는 이념적인 교과라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언어교육, 특히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되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능력이다. 이때 비판은 부정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국어 교과는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예술(art) 교과로서의 특성이 있다. 언어의 예술적 산물이자 표현물인 문학 작품과 관련된 것이다. 주로 문학 작품의 향유(享有) 능력과 관련된 특성으로 창의력(creativity)이나 상상력(imagina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5] 여기서 향유는 문학 창작뿐만 아니라 문학 수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학이라는 고급문화인 예술과 대중문학과 같은 대중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어 교과는 예술과 문화의 만남인 문학을 가르치는 교과이다.

이상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국어교육의 본질은 국어 교과를 융복합적

---

4) 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목표로 하는 자국어교육과는 달리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은 목표 언어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여 문화적 실천을 추구하는 상호문화적(intercultural)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국어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이전의 글들(윤여탁, 2008: 533-536; 윤여탁, 2014: 190-191)을 보완해서 정리한 것임.

인 교과임을 규정하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의 교수-학습의 내용이나 활동의 측면에 주목해서 이러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국어교육은 교수-학습의 제재라는 측면에서 교과 통합적 특성이 있는데, 이 점은 학습어로서 국어의 도구적 사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등장한 미디어의 융복합적 특성은 전통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현실문화라는 관점과 이러한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6] 아울러 국어교육의 중요 내용이자 활동이 되는 예술로서의 문학을 다루는 국어교육의 특성 역시 국어 교과의 융복합적인 특성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근거가 된다.

국어 교과는 이처럼 문학이라는 예술 교과이면서 도구 언어로서 언어 사용 교과, 언어문화 교과, 비판적 이념 교과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교과적 특성은 국어교육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예술, 문화, 이념과 같은 개념들이 인간, 사회, 환경 등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학문 영역이기 때문이다. 달리 설명하면, 국어 교과는 언어의 도구적 특성 때문에 다른 학문 영역의 다양한 내용을 교수-학습 제재로 선택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재의 융복합적 특성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융복합 교육의 실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국어교육이 개척해야 할 융복합으로서 미디어와 문학을 통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제재로 미디어와 문학이 만나서 창

---

6)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문식성에서 상호 문화, 멀티미디어 등을 중요시하고 있음은 이전의 논의(윤여탁, 2016: 159-163)에서 밝혔으며, '미국영어교사협회(NCT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의 『21세기 문식성 정의(The NCTE Definition of 21st Century Literacies)』(NCTE 홈페이지)와 미국의 준(準)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핵심국가표준계획(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의 「영어과 목표준(English Language Arts Standards)」(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해내는 새로운 문화 상품을 들 수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인터넷 시, 영상시 등이 그 초기적인 형태라면, 최근 새로운 서사 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웹(web) 소설, 컴퓨터 게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후자는 현대 산업사회의 문화 상품으로 미디어와 문학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생산물로, 국어교육의 한 분야인 매체(언어)를 매개로 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대상이다. 이 외에도 국어교육의 대상이자 내용을 웹 툰(web toon), 웹 드라마(web drama) 등 새로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7)]

아울러 국어 교과, 국어교육의 이와 같은 특성은 언어교육을 넘어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며, 전인교육(全人教育)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국어교육은 이처럼 학습자들이 현대사회에서 주체적인 정체성을 지닌 인간,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 국어교육은 학습자들이 말과 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 이해·표현 능력을 문식성 또는 소양(素養)이라고 일컫는다.

III. 국어교육에서 신 문식성과 문학 문식성

이 부분에서는 융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국어교육의 본질과 교육적 지향을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신 문식성과 예술로의 문학을 가르치는 문학교육에 초점을 맞춘 문학 문식성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7) 미디어와 문학의 만남을 통해서 생산된 새로운 문화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의 이론과 시각,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과 같은 실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로 미루어둔다.

1. 미디어와 신 문식성

지(J. P. Gee)는 20세기 후반에 '신 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후 랭크셔어와 노벨(Lankshear & Knobel)은 지(Gee)가 'D/discourse'을 구분해서 설명한 방식을 모방(meme)해서 '신 문식성'을 'L/literacy'로 설명하였다. 즉 'literacy'는 이미지나 소리에 대한 읽기, 쓰기, 보기, 듣기, 제작 등의 실제적인 과정으로, 서로 다른 아이디어, 단어, 상징들 사이의 관련성을 만들어내는 언어적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비하여 'Literacy'는 세계 속에서 삶과 존재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유의미하고 사회적으로 인식 가능한 유형을 생성해내는 것이라는 거시적 차원으로 정리하였다(Gee, 2015: 45-100; Lankshear & Knobel, 2006: 233).

이러한 견해는 문식성을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설명해주는 것이며, 현대사회의 미디어의 발달은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소통을 넘어 거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의 소통에 주목하여 문식성의 개념과 실천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즉 'Literacy'는 인간의 삶에 관계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나 인식 등과 관련된 것으로 '신 문식성'의 개념과도 의미가 상통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측면을 넘어 새로운 정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Literacy'는 신 문식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식성의 개념 확대는 프레이리(Freire)나 지(Gee) 등의 진보적 교육관이나 학문적 견해와도 연관이 있다.

어떻든지 신 문식성은 이처럼 현대사회 미디어 산업의 발달에 따라 제기된 교육적 소통 차원의 담론이다.[8] 이러한 신 문식성에서 'new'는 인쇄 기

8) 이러한 맥락에서 지(Gee)는 담론(discourse)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담론 차원의 언어를 넘어 비디오 게임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산물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신 문식성을 설명하고 있다.

술 이후(post-typographic)라고 불리는 디지털 전자 기술들(digital-electronic technologies)과 관련이 있으며, 신 문식성은 기술적인 것(technical stuff)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ethos stuff)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신 문식성의 정신 측면은 참여적, 협력적, 기여적이라고 설명되는 것으로, 이전의 문식성과는 다른 사고방식(mindset)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Lankshear & Knobel, 2006: 24-26).

이러한 신 문식성라는 용어는 매체 문식성(media literacy), 디지털 문식성(digital literacy)으로, 미디어의 복합적 특성과 관련시켜 복합 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y)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 문식성은 현대사회의 소통 방식이자 생산물인 새로운 매체를 다룰 수 있는 미디어 문식성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프레이리 등의 진보적 교육관과 관련이 있는 비판 정신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고방식 등 비판적 문식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Freire & Macedo, 1987/2014; Gee, 2015: 77-89).

그리고 신 문식성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상품이며, 유통의 측면에서는 쌍방향적 소통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어찌 보면 물질주의와 잉여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총화(總和)로, 그 실체와 결과들은 철저하게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블로그(blog),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밴드(Band), 카카오톡(KakaoTalk) 등은 다양한 소통 방식과 경로를 지향하면서 사회적[소셜 미디어(social media), SNS(social network service)]임을 내세우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현대 산업의 중심으로 그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 소통 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콘텐츠(contents)들이 생산되고, 이 소프트웨어(software) 콘텐츠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문화 상품

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된다. 또 가상의 공간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이와 같은 문화 상품들은 하드웨어(hardware)적인 자본재보다 더 빠른 자본주의 유통 구조 속에서 배급되어 소비된다. 아울러 이렇게 생산된 현대의 문화 상품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 욕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 상품을 배급해서 유통시키는 쌍방향적 네트워크는 이러한 유통 구조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산업은 유통망의 핵심인 플랫폼(platform)을 중심으로 거대한 기업 구조를 형성하며, 이들이 깔아놓은 망(網, network)으로 연결된 시장과 광장에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이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에서 소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소비자를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생비자(生費者, prosumer)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9] 소비자의 이러한 역할은 미디어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정보 처리와 의미 구성을 하는 소비자', '산업적 측면에서 본 수용자', '특별한 수용자로서의 아동들'[10](Potter, 2014/2016, 48-106)의 관점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가 상품의 유통과 인간의 의사소통 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대사회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신 문식성이라는 범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 신 문식성의 관점에서는 '세계는 물리적, 산업적 용어로 적절하게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응답할 수 없으며', '가치는 분산의 문제이며', '생산의 후기 산업적 관점이 지배하며', '집단적 지성에 집중되고', '전문가와 권위는 하이브리드 전문가처럼 분할되

9)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유통에서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등이 중요하지만, 특히 문화 상품의 경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유통망인 배급사와 생산과 배급을 독점하는 기획사 등 배분의 문제도 중요하다.

10) 소비자(수용자) 또는 향유자로서 아동의 문제는 미디어 교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아동과 미디어에 관계에 주목한 교육적 논의로는 버킹엄(Buckingham, 2000/2004)과 정현선(2007), 윤여탁 외(2008) 등의 저술을 참고할 수 있다.

어 있으며', '집합적이고, 공간은 열려있으며 지속적이고 유동적이고', '최근에 생겨난 디지털 미디어 공간의 사회적 관계라는 텍스트의 변화'(Lankshear & Knobel, 2006: 37-52)에 주목해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의 신 문식성이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디지털 전자 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정보 처리 기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이름으로 빠르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 문식성은 언어에 주목했던 이전의 문식성 개념과는 다른 미디어가 유통시키는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런 능력으로서의 신 문식성의 실제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기술의 빠른 세대교체는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신속한 조작, 운용 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2. 문학과 문학 문식성

앞에서 국어교육은 예술로서의 문학, 문화[11]로서의 국어를 교육 내용으로 하는 교과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과 문화라는 국어교육의 두 가지 본질은 전통문화로서의 정전(正典, canon, 고전)과 현실문화로서의 대중문학을 공동의 접점에서 만나게 한다. 또 국어 교과의 한 영역인 문학은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형상화한 예술로, 소설이나 희곡의 경우에는 감정이나 정서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도 하지만, 시의 경우에는 이미지, 비유, 상징, 리듬을 통해서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다. 이처럼 문학을 교수-학습하는 국어 교과는 정서적인 교과이기 때문에, 국어교육은 정서적인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설정하기도 한다.

---

11)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 문화와 언어교육, 문화교육의 관계는 다른 논의(윤여탁, 2013: 15-24)를 참고할 것.

일반적으로는 감정(feeling)과 정서(emotion)를 구별하여, 시와 같은 서정적인 장르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감정을 정서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교육학의 교육목표분류학(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12]의 용어인 정의(情意, affect)(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1999: 2327-233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678-679)라는 개념을 참조해서 국어교육을 정의 교과로 설명할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정서, 감정 등의 용어도 사용하였다. 어떻든지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은 인간의 정서나 정의를 형상화한 문학 작품을 중요 제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표현된 정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천한다. 즉 문학교육은 문학 작품을 학습하면서 정서적으로 감정이입하여 동화하거나 거부하여 이화(異化)하는 정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교수-학습하는 과정은 이해·감상과 표현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이해와 감상에는 학습자의 정의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감상 과정에서 정의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체험(직접 체험뿐만 아니라 독서나 학습과 같은 간접 체험까지 포함)이 계기로 작동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학 작품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감상의 내용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정의와 체험이 표현 능력(글쓰기와 말하기)과 더불어 작동하게 된다. 특히 시 교육에서는 시가 시인의 사상뿐만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시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정의적 감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서적이고 정의적인 특성을 지닌 국어교육을 정의 교과라고 규정하면서,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문학 문

12) 대표적인 예로 블룸(B. S. Bloom) 등은 교육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리 운동적(심동적)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식성(윤여탁, 2016: 156-176)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으며, 문학 작품의 감상이나 교수-학습에는 학습자나 교사라는 교육 주체의 정의와 체험이 중요하게 작용(윤여탁, 2017: 261-287)함을 밝힌 바 있다. 즉 문학교육에서는 문학 작품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문학 감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능력인 문학 문식성은 학습자의 정의와 체험의 발현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13)]

문학 문식성의 이와 같은 정의적, 정서적 특성을 '정서적(emotional) 문식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는 "정서를 다루고 그 원인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deal with one's emotions and recognize their causes)"(Dictionary.com 홈페이지)이라고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학술적인 논의에서는 "(세 단어의 문장으로) 특정한 감정의 단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The ability to express feelings with specific feeling words, in 3 word sentences.)"(Steve Hein's EQI.org 홈페이지)이라거나 "자신 및 타인의 감정적 상태와 관련된 인식, 이해, 사용 능력"(김지영, 2014: 333)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문학 문식성의 정의적 측면을 해명해주는 논의라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어교육, 문학교육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이처럼 문학교육은 교육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의 본질과 관련해서 정서적이고 정의적이라는 특성 외에도 국어교육, 문학교육의 특수성을 상상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문학교육의 제재인 창작물로서 문학 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상상력은 문학 작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문학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수용 과정에서도 작용

13) 문학 문식성과 정서적 문식성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문학 문식성의 본질을 학습자의 정의와 체험과 관련하여 설명한 이전의 논의들(윤여탁, 2015; 윤여탁, 2016; 윤여탁, 2017)을 참고할 것.

한다. 즉 상상력은 문학 작품의 창작 측면에서는 창조의 원동력이지만, 수용이나 학습의 측면에서는 이해와 감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핵심적인 문학 역량이다. 특히 비유적, 함축적인 표현 또는 불확정성(미정성)[14]이 많은 시를 이해하거나, 감상한 내용을 언어화하는 이해/표현의 과정에서 상상력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달리 설명하면, 시의 학습은 학습자가 시 이해와 감상 내용을 정서나 태도의 측면에서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학습자의 정서적 내면화는 말과 글로 다시 설명되었을 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의 문학적 상상력과 언어적 상상력이 함께 작동하게 된다. 상상력은 이처럼 문학 작품의 생산(표현)의 측면에서는 작가의 창조적인 활동의 원동력이 되며, 수용(이해)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주체적인 문학 해석이나 감상 능력을 활성화하는 데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의 작동 과정을 학습자의 정의나 체험과의 관계화라는 맥락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학교육에서 문학의 창작, 수용에 작용하는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 즉 정서, 정의, 체험, 상상력 등을 문학 문식성 또는 문학능력(literary competence)으로 설명하기도 한다.(한국문학교육학회 엮음, 2010) 특히 문학 창작과 수용 능력에 초점을 맞춘 문학능력이라는 개념은 융복합적 특성을 지닌 예술로서의 문학을 중요한 교수-학습의 내용이자 활동으로 하는 국어교육의 본질이자 국어교육을 다른 교과와 구별해주는 특수성의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14) 잉가르덴(Ingarden)의 영향을 받은 이저(Iser)가 제창한 현상학적인 개념으로 부재요소, 미결정성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IV. 맺음말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자 실제인 인간의 언어는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생산물과는 달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언어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한다. 이 글은 소통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어를 다루는 국어교육의 본질을 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폈으며, 주로 신 문식성과 문학 문식성이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어 국어교육의 융복합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창의성과 융복합을 지향하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어교육 차원의 단상(斷想)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거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기능적이고 반복적, 재생적, 실용적 지식을 생산하고, 그동안 인간이 담당했던 이러한 영역을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일정 부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술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진보인가? 허상인가? 이러한 기술이 인간에게 희망인가? 재앙인가? 등등의 논의가 그것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이러한 기술은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있지는 않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일정 부분 4차 산업혁명은 인간들에게서 많은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기획하는 인간의 생태는 파괴되고, 상생(相生)을 지향하려던 인간의 꿈은 일장춘몽(一場春夢)이 될 수 있다. 즉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정신적인 재앙으

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풍요를 보장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학문 영역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학문 영역과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과제와 제안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계는 너무 쉽게 이 유혹에 다가가고 있다. 최근 많은 학계가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제와 관련해서 학문적 지향을 추구하는 것이 그 예이며, 각 학계가 자신들의 고유한 위치에 서서 이들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조율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의탁하려고 하고 있다. 이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인간과 물질문명의 관계,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 하며, 이러한 성찰과 변혁을 통해서 우리 학계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학계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미래사회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각 학문 영역들은 그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향점을 모색해야 하며,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을 연구하면서 각 학문의 본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라 위기에 처해 있는 인간학,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나 인간다움을 탐구하는 인문학은 시류(時流)에 편승하기보다는 그 학문적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인간들 사이의 소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어교육학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8. 1. 29. 투고되었으며, 2018. 2. 8. 심사가 시작되어 2018. 3.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김은성(2003),「국어과 창의성 교육의 관점」,『국어교육학연구』18, 65-88.

김지영(2014),「정서적 문식성 향상을 위한 정서 어휘 교육의 방향」,『청람어문교육』49, 321-345.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 11. 30., 사이트주소 https://www.4th-ir.go.kr/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99),「정의적 특성의 평가」,『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정의(情意, affectivity)」,『국어교육학사전』, 서울: 대교출판.

연합뉴스(2017. 11. 30), 문 정부 4차산업혁명 밑그림 나왔다…'사람중심 지능화경제', 검색일자 2017. 11. 30., 사이트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21175&isYeonhapFlash=Y&rc=N

윤여탁 외(2008),『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윤여탁(2008),「국어교육의 본질과 교과서」,『선청어문』36, 531-552.

윤여탁(2013),『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국어 문화교육의 벼리[綱]』, 파주: 태학사.

윤여탁(2014),「창의성의 재개념화와 국어교육의 지향과 과제」,『새국어교육』98, 185-206.

윤여탁(2015),「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국어교육연구』36, 535-561.

윤여탁(2016),「문학 문식성의 본질, 그 가능성을 위하여: 문화, 창의성, 정의(情意)를 중심으로」,『문학교육학』51, 156-176.

윤여탁(2017),「시 교육에서 학습 독자의 경험과 정의에 관한 연구」,『국어교육연구』39, 261-287.

정현선(2007),『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미디어 분석과 자아 표현, 기능 훈련의 사례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문학교육학회 엮음(2010),『문학능력』, 서울: 역락.

Buckingham D.(2004),『전자매체 시대의 아이들』, 정현선(역), 서울: 우리교육(원서출판 2000).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홈페이지, 영어과목표준(English Language Arts Standards), 검색일자 2017. 12. 22., 사이트 주소 http://www.corestandards.org/ELA-Literacy/

Dictionary.com 홈페이지, 정서적 문식성(emotional literacy), 검색일자 2017. 11. 9., 사이트 주소 http://www.dictionary.com/browse/emotional-literacy

Freire P. & Macedo D.(2014),『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 허준(역), 서울: 학이시습(원서출판 1987).

Gee J. P.(2015),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cies: Ideology in discourses*,(5th Ed.), London: Routledge.

Lankshear C. & Knobel M.(2006), *New literacy: Everyday practices and classroom*

learning, (2nd Ed.),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Lankshear C., Gee J. P,, Knobel M., & Searle C. (1997), *Changing literac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NCTE 홈페이지, 21세기 문식성 정의(The NCTE Definition of 21st Century Literacies), 검색일자 2017. 12. 22., 사이트 주소http://www.ncte.org/positions/statements/21stcentdefinition
Potter W. J. (2016),『미디어 리터러시』, (2판), 김대희, 임윤경(역), 서울: 소통(원서출판 2014).
Steve Hein's EQI.org 홈페이지, 정서적 문식성(emotional literacy) 정의, 검색일자 2017. 11. 9., 사이트 주소 http://eqi.org/elit.htm#Definition of Emotional Literacy
Tudor I. (2001), *The dynamics of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초록

국어교육의 융복합적 특성과 문식성

윤여탁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기에 국어교육은 어떤 지향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융복합 교과로서의 국어교육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어교육의 지향과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내용을 문식성(文識性, literacy) 교육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즉 국어교육에서 중시했던 기능적 문식성을 넘어 문식성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융복합적인 교과로서의 국어교육은 의사소통 차원의 언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신 문식성' 능력의 함양이라는 맥락에서 멀티미디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라는 점을 주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어교육의 내용이자 제재가 되는 예술로서의 문학 작품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에 주목하는 '문학 문식성'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미래 사회에서 새롭게 추구해야 할 문식성 교육의 방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의 지향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국어교육, 융복합 교과, 문식성, 멀티미디어, 신 문식성, 문학, 문학 문식성

ABSTRACT

Converge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Literacy

Yoon Yeota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period calling for a transformation of the ide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do thi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convergence curriculum are discussed along with the direction and the method of it's practice. Explained in terms of changes in literacy education,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concept of literacy should be extended beyond functional literacy, which is importan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articular,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convergence curriculum should focus on the learners' ability to operate multimedia as a "new literacy" ability from the viewpoint of communicative language education.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the status and role of "literary literacy" are discussed focusing on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express literary works as contents and material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inally, the orient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ed on the direction of literacy education to be pursued in future is clarified.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vergence Curriculum, Literacy, Multimedia, New Literacy, Literature, Literary Literacy